

이념층 '자기 인식' 및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평가

■ 이념층별 '자기 인식' 현황

- _ 자기 이념 자부심, 비슷한 가운데 진보층 가장 높아
- _ 사회기여도, 중도·보수층 비슷하고 진보층 가장 높아
- _ 유능함, 이념층 모두 비슷한 가운데 진보층 높아
- _ 신뢰도, 보수·중도층 비슷하고 진보층 소폭 높아
- _ 사회적 위치, 중도·진보층 '소외' vs 보수층 '주도'
- _ 국민생각과의 일치, 모두 비슷한 가운데 보수층 가장 낮아

■ 각 이념층에 대한 타 이념층의 평가

- _ 보수층에 대한 중도·진보층 평가, 매우 부정적
- _ 진보층 평가, 중도층 다소 긍정적 / 보수층 부정적
- _ 중도층 평가, 보수·진보층 모두 비교적 긍정적
- _ 중도층의 보수/진보층 평가, 진보층에 더 긍정적

■ 이념층별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평가

- _ 윤 대통령 평가, 전반적으로 보수/중도/진보 모두 부정적
- _ 이재명 대표 평가, 진보층만 긍정 평가
- _ 중도층의 윤 대통령/이 대표 평가, 이 대표에 우호적
- _ 2030세대,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 부정 평가
- _ 4060세대 역시 두 사람 모두에 대해 부정 평가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3년 9월 1일(금) ~ 9월 3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본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38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04\%$
가중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3년 8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일러두기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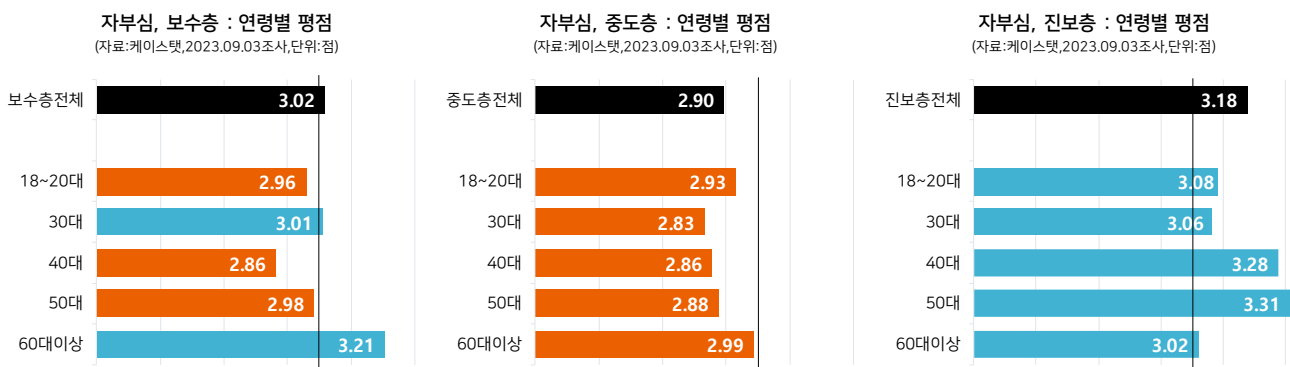
이념층 '자기 인식' 현황

자기 이념 자부심, 비슷한 가운데 진보층 가장 높아

- 각 이념층에게 자신의 이념성향에 대한 자부심을 질문한 결과 보수/중도/진보층 모두 '보통'(3점)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진보층이 3.1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각 이념층별로 "나는 내가 [보수/중도/진보] 라는 점에 대해..." '가끔은 매우 불만이다' 1점에서 '언제나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5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 결과임



- 연령별로 살펴보면, 보수층의 경우 30대와 60대이상은 '보통'(3점)을 상회한데 비해, 다른 연령은 '가끔은 불만인 편이다'에 해당하는 3점 미만을 기록함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세로 선은 '보통'에 해당하는 3점 기준선임
- 진보층은 모든 연령이 '언제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편이다'에 해당하는 3점 이상의 수치를 나타냄
- 50대의 점수가 가장 높고(3.31점), 60대이상이 가장 낮음(3.02점)
- 중도층은 모든 연령이 3점 미만을 기록, '가끔은 불만인 편'이라고 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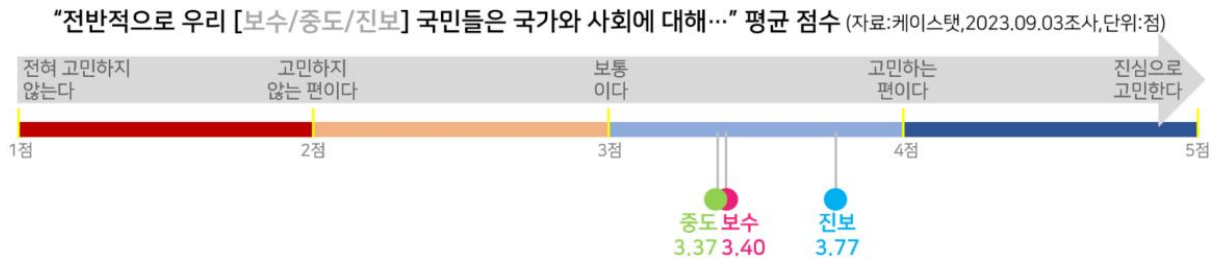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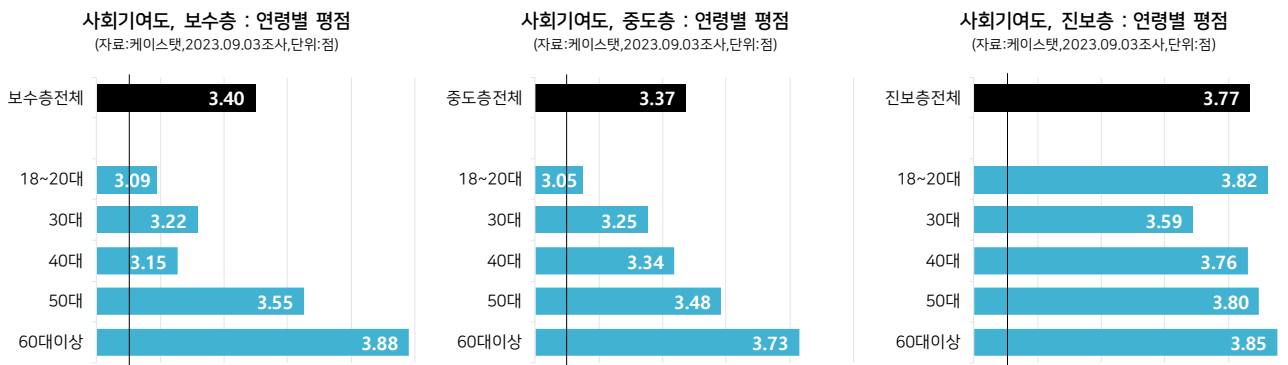
- ☑ 자신의 이념성향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가끔 불만'과 '언제나 자랑스러움'의 중간 수준에 있음
: 상대적으로 진보층의 자부심이 가장 높고, 다음은 보수층, 중도층 순임
- ☑ 각 이념별 자부심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보수층은 60대이상의 자부심이 높고, 진보층은 4050세대가 높음
: 이들이 해당 이념층을 주도하는 연령으로 분석됨
- ☑ 이에 비해 중도층은 모든 연령이 3점 미만을 기록, 자신의 이념성향에 종종 곤혹스러워 모습임

□ 사회기여도, 중도·보수층 비슷하고 진보층 가장 높아

- 보수/중도/진보층 모두 자기 이념층이 국가와 사회에 대해 '고민하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진보층이 이러한 생각이 가장 강함
 - 진보층은 3.77점을 기록했으며, 보수층과 중도층은 비슷한 수치(각각 3.40점, 3.37점)를 나타냄
 - 각 이념층별로 "전반적으로 우리 [보수/중도/진보] 국민들은 국가와 사회에 대해..." '전혀 고민하지 않는다' 1점에서 '진심으로 고민한다' 5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 결과임



- 이념별/연령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모든 이념층에 걸쳐 연령이 높을수록 국가와 사회에 대해 '고민하는 편'이라는 생각이 강함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세로 선은 '보통'에 해당하는 3점 기준선임
- 보수층의 경우 60대이상의 사회기여도 점수는 3.88점으로 매우 높음
- 중도층 역시 60대이상의 점수가 가장 높고(3.73점), 진보층도 60대이상이 가장 높음(3.85점)
 - 다만, 진보층은 예외적으로 18~20대의 점수가 60대이상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함(3.8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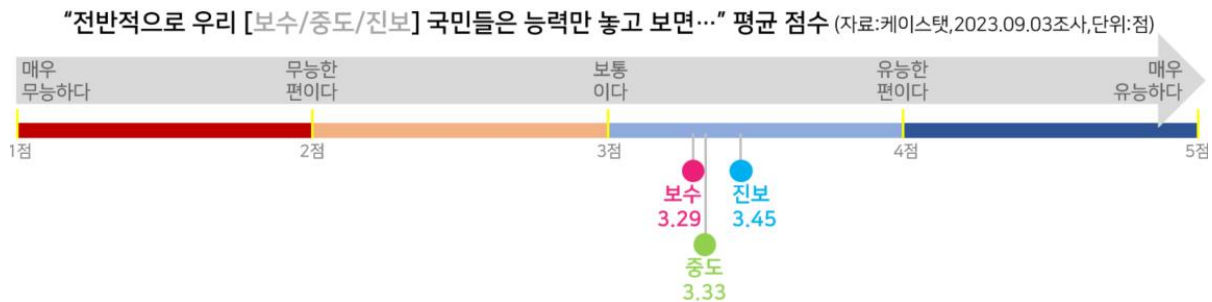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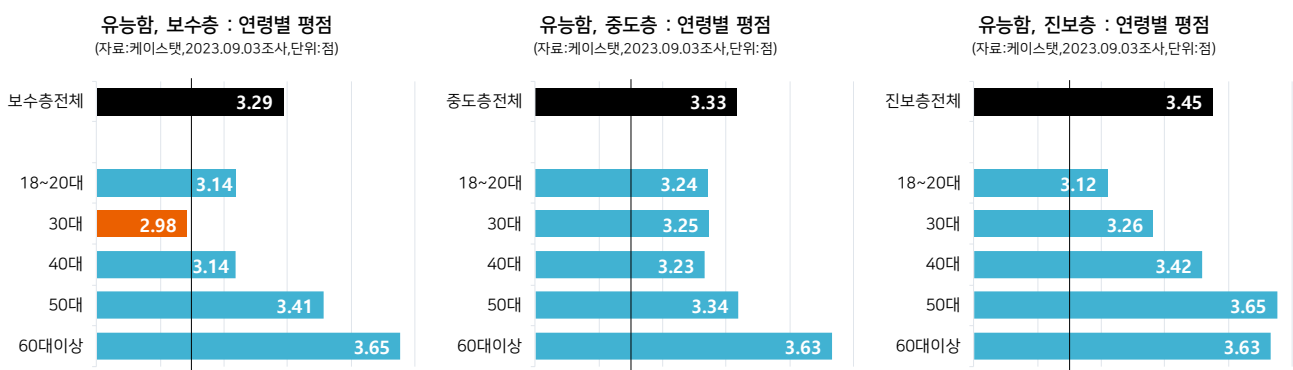
- ☑ 보수/중도/진보층 모두 자신이 속한 이념층이 국가와 사회에 대해 '고민하는 편'이라고 생각함
 - : 진보층이 가장 높고 다음은 보수층, 중도층 순인데, 이는 앞서 자기 이념 자부심과 같은 순서임
 - : 국가·사회에 대한 고민은 곧 우리사회 문제해결에 대한 고민이자, 기여 방법에 대한 고민으로 이해 가능함
- ☑ 이러한 사회기여도는 이념층 모두 연령이 높을수록 강해, 60대이상의 점수가 가장 높음
- ☑ 다만, 예외적으로 진보층은 18~20대의 점수도 매우 높고, 다른 연령 모두 높은 점수를 나타냄
 - : 앞서 진보층의 상대적으로 높은 자부심은, 자신들이 국가와 사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여한다는 생각에 기반한 것으로 보임

□ 유능함, 이념층 모두 비슷한 가운데 진보층 높아

- 능력에 대한 질문에 보수/중도/진보층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자기 이념층이 '유능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진보층이 조금 더 강함
 - 진보층이 3.45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중도층(3.33점), 보수층(3.29점) 순임
 - 각 이념층별로 "전반적으로 우리 [보수/중도/진보] 국민들은 능력만 놓고 보면..." '매우 무능하다' 1점에서 '매우 유능하다' 5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 결과임



- 이념별/연령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모든 이념층에서 연령에 비례해 '유능한 편'이라는 생각이 강함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세로 선은 '보통'에 해당하는 3점 기준선임
- 보수층은 60대이상의 유능함 점수가 3.65점으로 가장 높음
 - 보수층 중 30대는 '보통'에 미치지 못하는 2.98점을 기록, 모든 이념별/연령별 중에서 유일하게 3점 미만임
- 또한 중도층도 60대이상도 3.63점으로 가장 높고, 진보층 60대이상도 동일하게 3.63점을 기록함
 - 다만, 진보층은 예외적으로 50대의 점수가 60대이상 보다 근소하게 높음(3.6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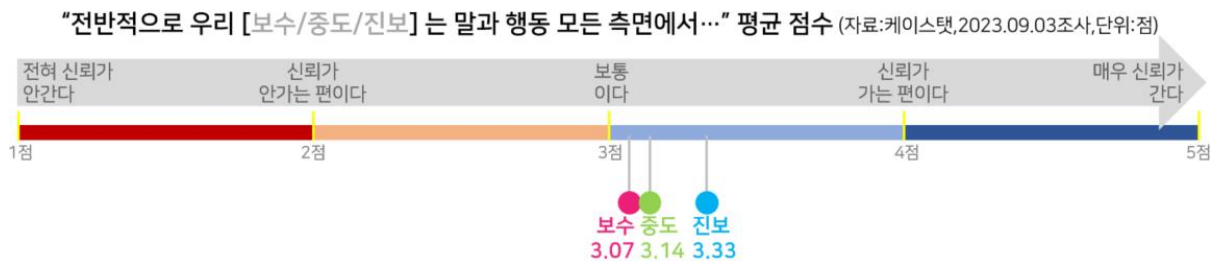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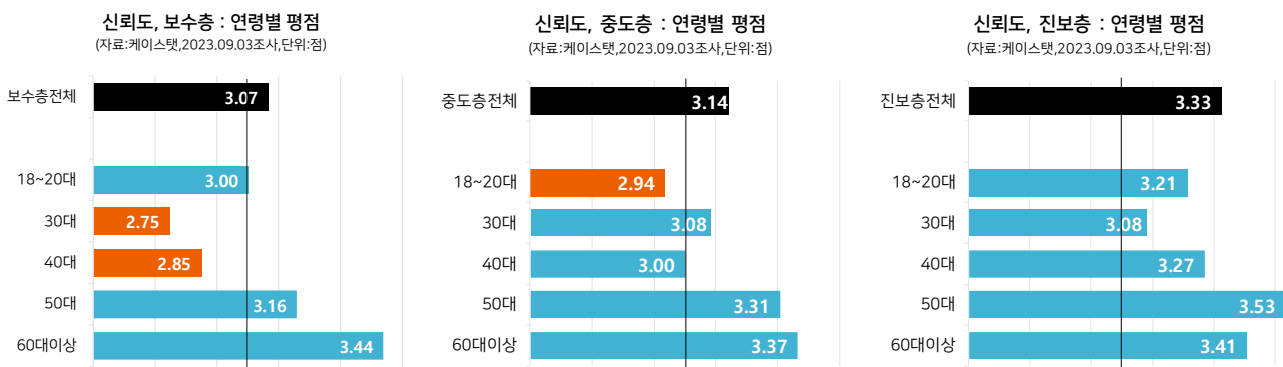
- ☑ 보수/중도/진보층은 비슷한 수준으로 자신이 속한 이념층이 '유능한 편'이라고 응답함
 - : 근소한 차이로 보수층이 가장 낮고, 진보층이 가장 높음
- ☑ 이러한 생각은 이념층 모두 연령이 높을수록 강한 모습이 매우 뚜렷함
- ☑ 다만, 진보층은 예외적으로 50대의 '유능함' 점수가 60대이상보다 소폭 높은 차이가 있음
 - : 50대 진보층은 자부심이 가장 높은 연령이고, 능력에 대해서도 유능하다는 자신감이 가장 높은 특징을 보임

□ 신뢰도, 보수·중도층 비슷하고 진보층 소폭 높아

- 신뢰도에 대한 질문에 보수·중도층이 비슷한 신뢰도 점수를 기록하고, 진보층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함
 - 보수층과 중도층이 비슷하고(각각 3.07점, 3.14점), 진보층이 3.33점으로 소폭 더 높음
 - 각 이념층별로 “전반적으로 우리 [보수/중도/진보] 국민들은 말과 행동 모든 측면에서...” ‘전혀 신뢰가 안간다’ 1점에서 ‘매우 신뢰가 간다’ 5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 결과임



- 이념별/연령별로 살펴보면 신뢰도 점수가 다른데, 먼저 보수층 5060세대의 신뢰도는 ‘보통’(3점) 이상이지만 3040세대는 3점 미만의 ‘신뢰가 안가는 편’이라고 응답함
 - 18~20대는 3.00점으로 ‘보통’ 점수를 기록함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세로 선은 ‘보통’에 해당하는 3점 기준선임
- 중도층은 18~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이 3점 이상을 기록했고, 진보층은 모든 연령이 3점 이상을 기록함
 - 전반적으로 진보층이 모든 연령에 걸쳐 ‘신뢰가 가는 편’이라는 응답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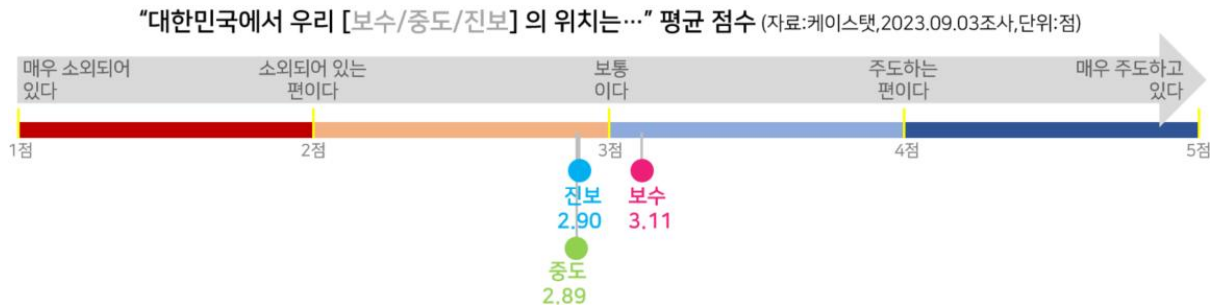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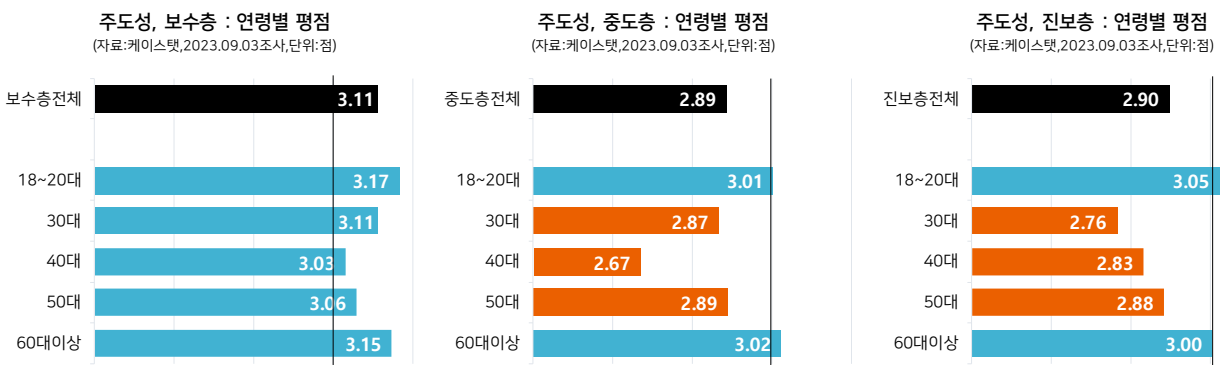
- ☑ 신뢰도 측면에서 이념층 모두 ‘신뢰가 가는 편’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진보층이 소폭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함
- ☑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이념별/연령별로 살펴보면 그 양상이 다른데, 보수층과 중도층은 5060세대에서 ‘신뢰가 가는 편’이라는 응답이 높고, 다른 연령은 다른 모습임
 - : 보수층 3040세대는 3점 미만을 기록, ‘신뢰가 안가는 편’이라 응답했고, 중도층 20대 역시 마찬가지임
- ☑ 이에 비해 진보층은 모든 연령이 3점 이상의 점수로 ‘신뢰가 가는 편’이라고 응답함
 - : 신뢰도에서도 진보층 50대의 점수가 가장 높음

□ 사회적 위치, 중도·진보층 '소외' vs 보수층 '주도'

- 우리 사회에서 각 이념층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질문에 중도·진보층은 '소외되어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보수층은 '주도하는 편'이라고 생각함
 - 중도층과 진보층이 비슷하게 3점 미만의 점수를 기록하고(각각 2.89점, 2.90점), 보수층은 3.11점을 기록함
 - 각 이념층별로 "대한민국에서 우리 [보수/중도/진보] 의 위치는..." '매우 소외되어 있다' 1점에서 '매우 주도하고 있다' 5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 결과임



- 이념별/연령별로 살펴보면, 먼저 보수층의 경우 모든 연령이 '보통'(3점) 이상의 점수로 '주도하는 편'이라고 응답함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세로 선은 '보통'에 해당하는 3점 기준선임
- 중도층과 진보층은 모두 3050세대에서 3점 미만의 점수로 '소외되어 있는 편'이라고 응답함
 - 20대와 60대 이상은 근소하고 3점 이상의 점수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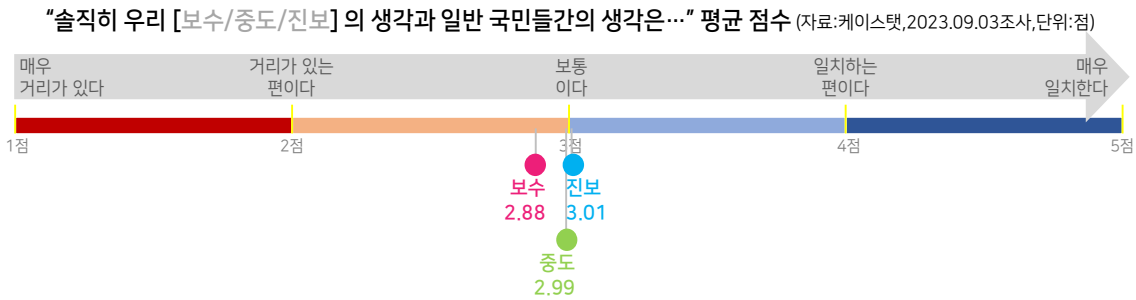


Kstat Point

- ☑ 대한민국에서의 사회적 위치에 대해 중도층과 진보층은 '소외되어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보수층은 '주도하는 편'으로 생각함
- ☑ 이는 현 정부가 '보수 정부'라는 정치상황이 큰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임
 - : 보수층은 자신들이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편'이라 생각하고, 모든 연령이 이렇게 생각함
 - : 이에 비해 중도·보수층 3050세대는 '소외되어 있는 편'이라는 생각이 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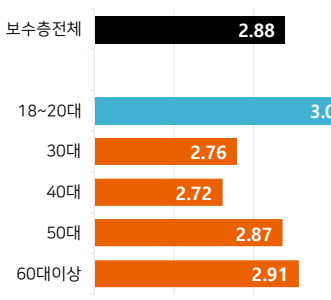
□ 국민생각과의 일치, 모두 비슷한 가운데 보수층 가장 낮아

- 자신이 속한 이념층과 일반 국민과의 생각 일치 여부를 질문한 모든 이념층이 비슷한 점수를 기록한 가운데, 보수층이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함
 - 보수층은 2.88점이고, 중도층과 진보층은 비슷함(각각 2.99점, 3.01점)
 - 각 이념층별로 “솔직히 우리 [보수/중도/진보] 의 생각과 일반 국민들간의 생각은...” ‘매우 거리가 있다’ 1점에서 ‘매우 일치한다’ 5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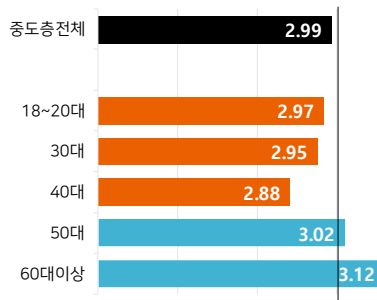


- 이념별/연령별로 살펴보면, 보수층의 경우 20대는 ‘일치하는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외 3060세대는 모두 ‘거리가 있는 편’으로 생각함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세로 선은 ‘보통’에 해당하는 3점 기준선임
- 중도·진보층 5060세대는 ‘일치하는 편’으로 생각하지만, 2040세대는 ‘거리가 있는 편’이라고 응답함
 - 전반적으로 진보층이 모든 연령에 걸쳐 ‘신뢰가 가는 편’이라는 응답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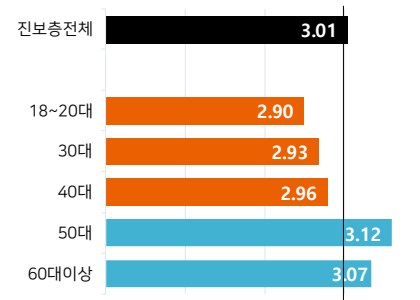
국민공감력, 보수층 : 연령별 평점
(자료:케이스탯,2023.09.03조사,단위:점)



국민공감력, 중도층 : 연령별 평점
(자료:케이스탯,2023.09.03조사,단위:점)



국민공감력, 진보층 : 연령별 평점
(자료:케이스탯,2023.09.03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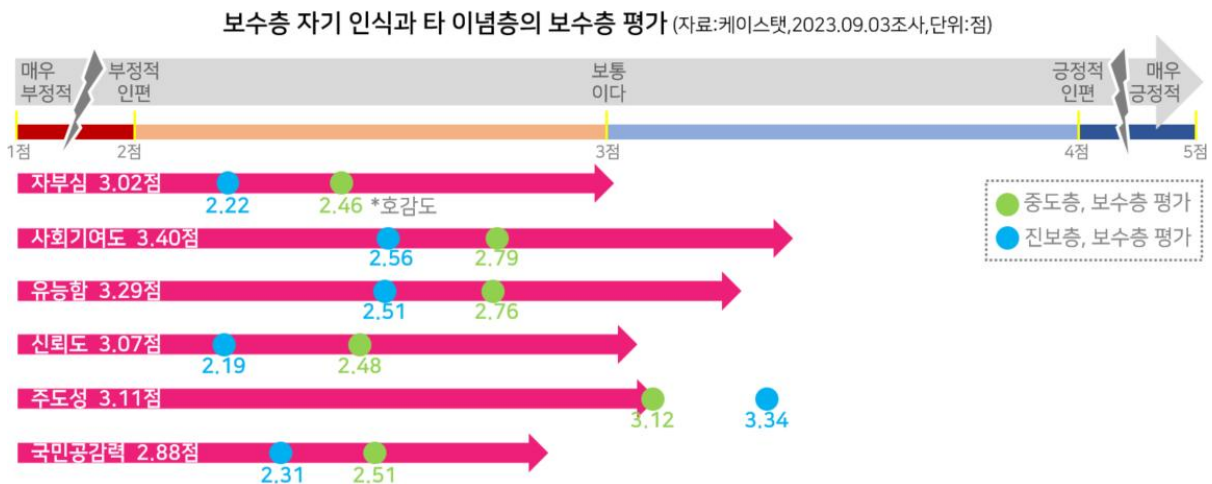
Kstat Point

- ☑ 보수/중도/진보층 모두 자신이 속한 이념층이 일반 국민생각과 비슷하다고 생각함
 - : 중도·진보층은 ‘보통’에 해당하는 3점에 가깝고 보수층은 소폭 낮는데, 생각 일치 여부는 곧 국민공감력과 같음
- ☑ 지금까지의 각 이념층이 스스로를 생각하는 ‘자기 인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 보수층 - 내가 보수층이라는 점에 ‘조금’ 자부심을 느끼고, 사회기여도는 높고, 유능하며, 신뢰도는 무난하고, 대한민국을 주도하고 있지만, 국민공감력은 다소 떨어짐
 - : 중도층 - 중도층이라는 점에 ‘조금’ 불만이고, 사회기여도는 높고, 유능하며, 신뢰도도 높지만, 대한민국에서 소외되어 있고, 국민공감력은 보통임
 - : 진보층 - 진보층이라는 점에 자부심을 느끼고, 사회기여도는 높고, 유능하며, 신뢰도 역시 높지만, 대한민국에서 소외되어 있고, 국민공감력은 보통임

각 이념층에 대한 타 이념층의 평가

보수층에 대한 중도·진보층 평가, 매우 부정적

- 각 이념층의 '자기 인식'과 타 이념층의 생각을 비교하기 위해, 앞서 '자기 인식' 6가지 측면을 각 이념별로 평가토록 함
 - 즉, 보수층에 대해서는 중도층과 진보층이 평가하고, 중도층에 대해서는 보수층과 진보층이, 진보층에 대해서는 보수층과 중도층이 평가토록 설문을 설계함
 - 다만, '자부심'의 경우, 해당 이념층에 대한 호감도로 바꿔서 질문함 ("보수/중도/진보 국민들을 볼 때 드는 감정은..." '전혀 호감이 안간다' 1점에서 '매우 호감이 간다' 5점 기준)
- 먼저 보수층의 경우, 보수층의 '자기 인식'에 비해 중도층과 진보층은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 보수층은 자부심이 '보통' 수준인 3.02점을 기록했지만, 진보층과 중도층 모두 '호감이 안가는 편'이라고 응답함
- 사회기여도는 보수층 스스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지만, 진보층과 중도층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함
 - 이외에도 유능함, 신뢰도, 국민공감력 모두 보수층의 '자기 인식'보다 부정적인 점수를 받음
- 한편, 대한민국 주도성의 경우 보수층의 '주도하는 편'이라는 생각에 중도층은 비슷한 수준으로 동의했지만, 진보층은 더 많이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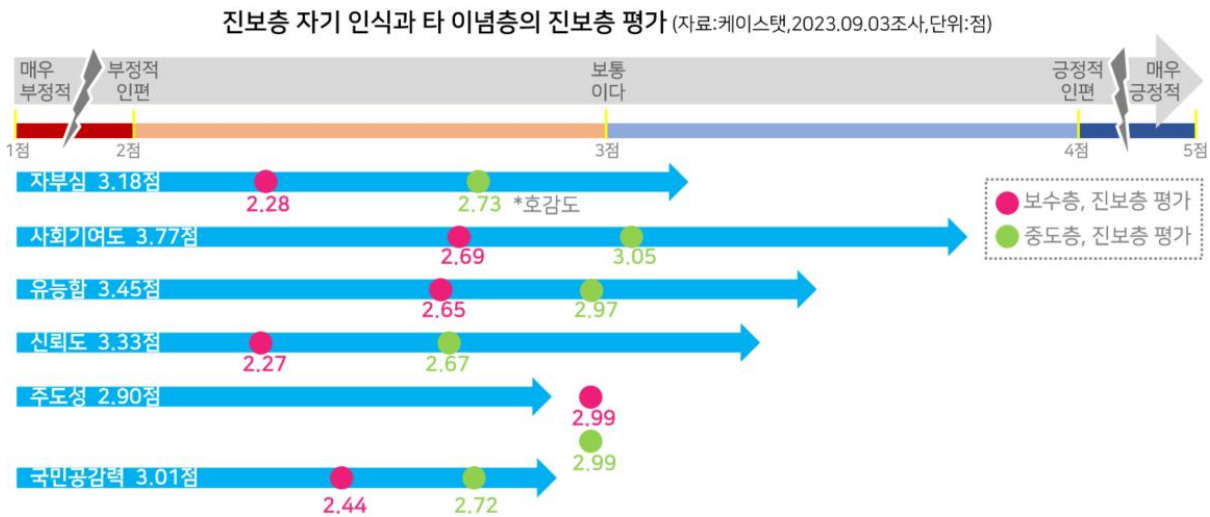


Kstat Point

- ☑ 보수층의 '자기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인 편이지만, 중도층과 진보층은 보수층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
 - : 특히 호감도, 신뢰도, 국민공감력에 대한 평가가 매우 부정적임
 - : 또한 중도층보다 진보층의 부정적 평가가 강력함
- ☑ 한편, 보수층의 대한민국 주도성에 대해서는 보수층의 생각과 중도층의 평가가 유사함
 - : 하지만, 진보층은 보수층의 주도성을 더욱 높게 평가함

□ 진보층 평가, 중도층 다소 긍정적 / 보수층 부정적

- 진보층에 대한 다른 이념층의 평가를 보면, 진보층의 '자기 인식'에 비해 중도층은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보수층은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함
- 진보층의 자부심은 '보통'을 상회하는 3.18점이지만, 보수층과 중도층 모두 '호감이 안가는 편'이라고 응답함
- 사회기여도는 진보층 스스로 매우 높은 점수를 기록한 측면인데, 중도층은 이에 대해 긍정하지만 보수층은 부정함
 - 이외에도 유능함, 신뢰도, 국민공감력 모두 진보층의 '자기 인식'보다 부정적인 점수를 받음
- 한편, 대한민국 주도성의 경우 진보층 스스로는 '소외되어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중도·진보층 모두 '보통'에 해당하는 평가를 내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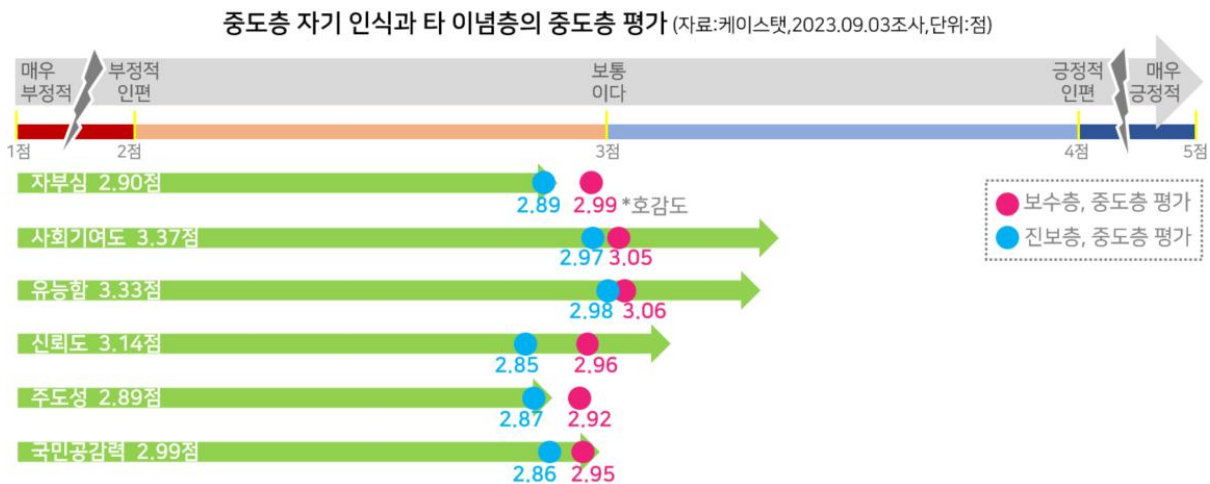


Kstat Point

- ☑ 진보층의 '자기 인식'은 다른 이념층에 비해 매우 긍정적이지만, 중도층과 보수층은 부정적으로 평가함
 - : 특히 호감도, 신뢰도, 국민공감력에 대한 평가가 매우 부정적임 (이는 보수층에 대한 중도·진보층 평가와 동일함)
 - : 다만, 보수층은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비해 중도층은 다소 긍정적인데, 사회기여도의 경우 중도층은 3점 이상의 점수를 매김
- ☑ 한편, 진보층의 대한민국 주도성에 대해 진보층 스스로는 '소외되어 있는 편'으로 생각하지만, 중도층과 보수층은 '보통' 수준이라고 생각함
- ☑ 앞서 보수층에 대한 진보층 평가와 함께 생각할 때, 보수층과 진보층은 서로에 대한 시선이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 특히 서로가 서로에 대해 호감이 안가고, 신뢰하지 않으며, 국민공감력이 낮다고 생각함
 - : 이번 조사결과만 놓고 보면, 우리사회의 극심한 '진영 대결' 양상이 진정되거나 해소될 가능성이 낮아 보임

□ 중도층 평가, 보수·진보층 모두 비교적 긍정적

- 중도층에 대한 다른 이념층의 평가를 보면, 전반적으로 보수층과 진보층 모두 중도층의 '자기 인식'에 근접한 평가를 내림
- 특히 진보층보다 보수층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함
- 먼저 중도층의 자부심은 '보통' 미만인 2.90점을 기록했으나, 보수층은 '보통'에 가까운 2.99점의 호감도를 기록함
 - 이에 비해 진보층이 보는 중도층 호감도는 '호감이 안가는 편'에 해당하는 2.89점임
- 사회기여도는 중도층 스스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측면인데, 진보층과 보수층 모두 '보통'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의 점수를 매김
 - 이외에도 유능함, 신뢰도, 국민공감력 모두 중도층의 '자기 인식'에 근접한 점수를 받음
- 한편, 대한민국 주도성의 경우 중도층의 '소외되어 있는 편'이라는 생각에 진보층은 비슷한 수준으로 동의했지만, 보수층은 '보통'에 가깝게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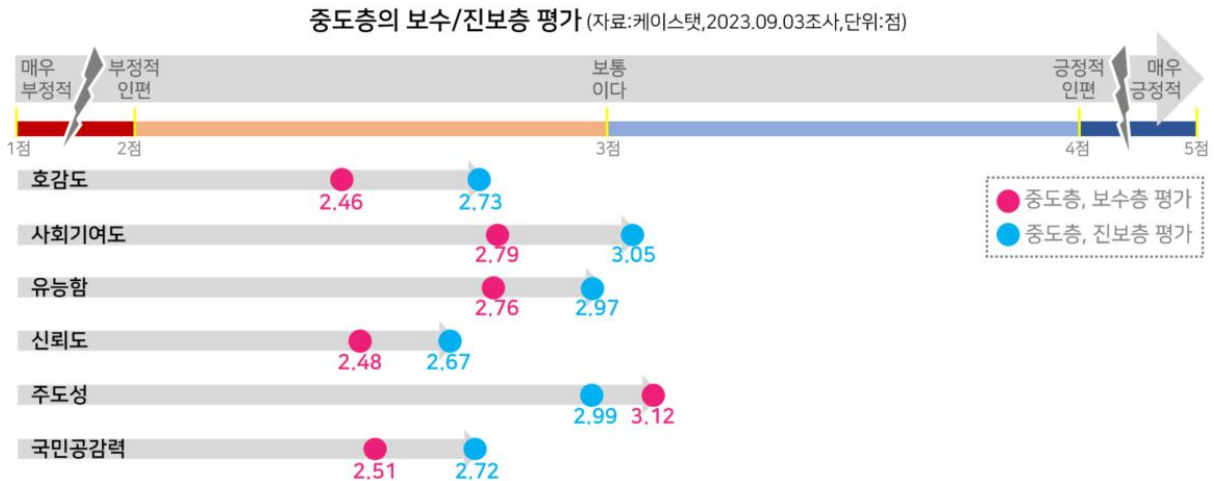


Kstat Point

- ☑ 중도층의 '자기 인식'은 다른 이념층에 비해 다소 부정적인데, 보수층과 진보층의 평가 역시 이에 근접함
 - : 즉, 중도층의 '자기 인식'과 보수·진보층의 평가가 비교적 비슷함
- ☑ 또한 앞서 보듯 보수층과 진보층은 서로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중도층에 대해서는 모두 긍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음
 - : 중도층 스스로 높은 점수를 기록한 사회기여도와 유능함에 대해 보수층과 진보층 모두 '보통'에 해당하는 점수로 긍정적으로 평가함
 - : 특히 진보층에 비해 보수층의 시선이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임
- ☑ 한편, 중도층의 대한민국 주도성에 대해 중도층 스스로는 '소외되어 있는 편'으로 생각하고 진보층은 이에 동의하지만, 보수층은 조금 다르게 생각함
 - : 즉, 보수층은 중도층의 사회적 위치를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음

□ 중도층의 보수/진보층 평가, 진보층에 더 긍정적

- 중도층의 보수층과 진보층 평가만을 따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진보층에 긍정적임
- 먼저 호감도를 보면, 중도층은 보수층에 대해서는 2.46점으로 매우 낮은 점수를 기록한데 비해, 진보층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2.73점을 기록함
 - 중도층은 보수층과 진보층 모두에 대해 '호감이 안가는 편'으로 생각하지만, 상대적으로 진보층에 호감을 갖고 있음
- 사회기여도를 비롯해 유능함, 신뢰도, 국민공감력 모두 보수층보다 진보층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림
 - 특히 진보층의 사회기여도, 유능함에 대해서는 '보통'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의 점수를 매김
- 한편, 대한민국 주도성의 경우 보수층은 '주도하고 있는 편'으로 평가하고, 진보층은 '보통'에 근접한 평가(2.99점)를 내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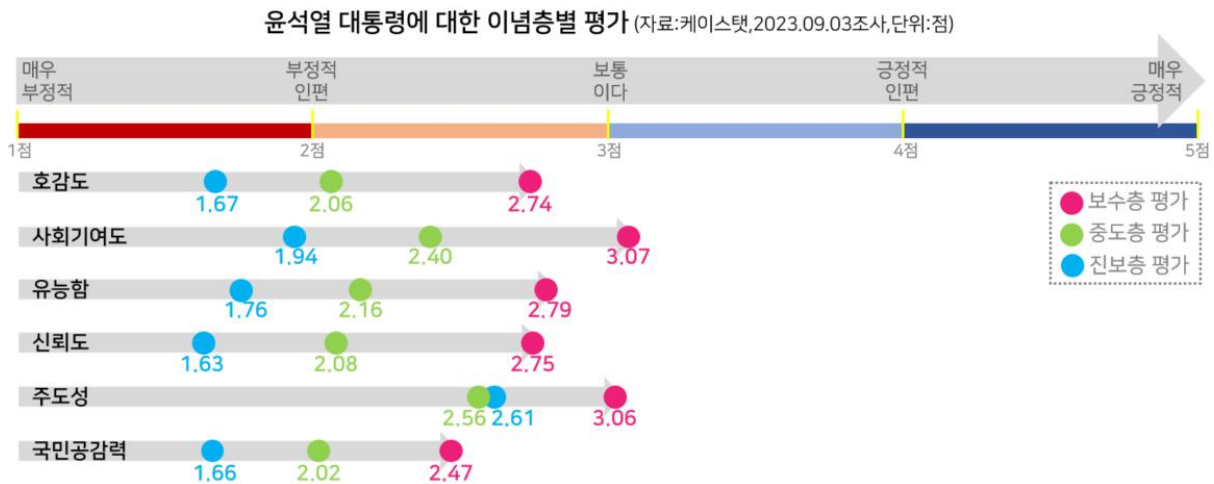
Kstat Point

- ☑ 중도층은 전반적으로 보수층보다 진보층에 우호적임
 - : 사회기여도와 유능함 등 일부 측면에서는 진보층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 앞서 중도층에 대한 보수/진보 평가에서 보듯 보수층은 중도층에 우호적이지만, 정작 중도층은 진보층에 우호적임
 - :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보수/진보 모두 중도층 포용에 주력해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는 진보가 유리한 상황에 있음
 - : 이러한 상황이 내년 4월 총선 시기까지 유지될 경우, 야당이 승리할 것으로 전망됨

이념층별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평가

윤 대통령 평가, 전반적으로 보수/중도/진보 모두 부정적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앞서와 동일하게 6가지 측면에 걸쳐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보수/중도/진보층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함
- 거의 모든 측면에서 '보통'(3점) 미만을 기록한 가운데, 사회기여도에 대한 보수층 평점(3.07점)과 주도성에 대한 보수층 평점(3.06점)만 '보통'을 상회함
 - 그외 모든 측면에서 모든 이념층의 평점이 '보통'(3점) 미만임
- 이념층별로 살펴보면, 진보층의 평가가 가장 부정적임
 - 진보층은 주도성을 제외한 모든 측면에 대해 '매우 부정적'에 해당하는 1점대 점수를 매김
 - 중도층은 상대적으로 진보층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보수층은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함
- 한편, 대한민국 주도성에 대해 보수층은 '주도하는 편'(3.06점)으로 평가한 데 비해 중도층과 진보층은 '소외되어 있는 편'(각각 2.56점, 2.61점)으로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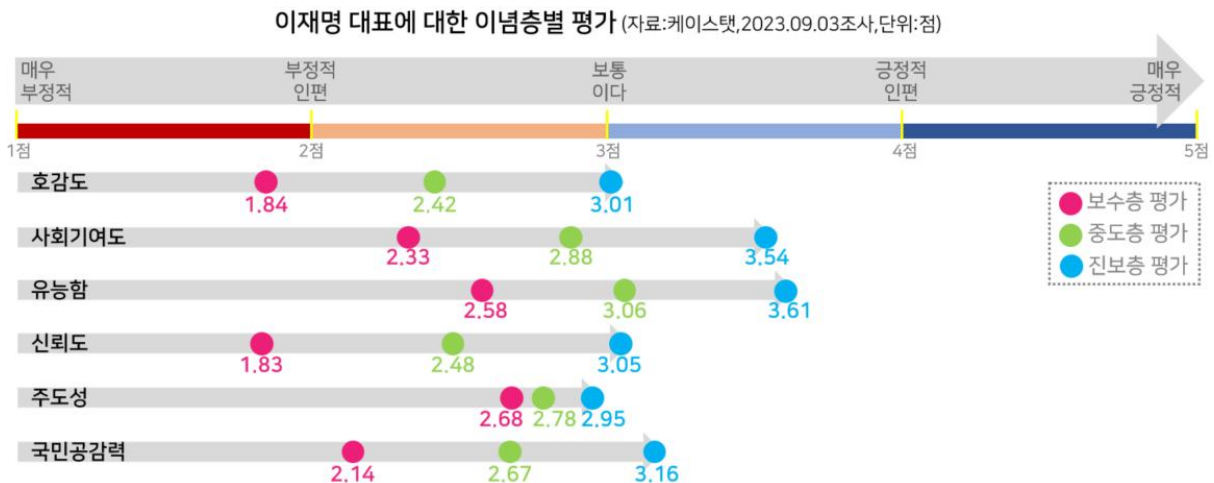


Kstat Point

-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념층별 평가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이고, 여기에는 보수층도 예외가 아님
 - : 보수층의 윤 대통령 평가를 보면, 호감도 2.74점, 유능함 2.79점, 신뢰도 2.75점, 국민공감력 2.47점 등으로 부정적인 편에 해당함
 - : 사회기여도(3.07점)와 주도성(3.06점)에서만 '보통'을 소폭 상회하는 점수를 매김
- ☑ 특히 주목되는 지점은 대한민국 주도성에 대한 평가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중도·진보층은 '소외되어 있는 편'이라고 생각함
 - : 보수층도 3.06점으로 '보통'을 소폭 상회하는 정도로 주도성을 약하게 평가함
 - :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자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평가임
 - :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다른 측면은 몰라도 대한민국 주도성 평가를 주목하고, 대통령 위상 재정립 및 국정운영 방향성을 재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재명 대표 평가, 진보층만 긍정 평가

-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평가를 6가지 측면에 걸쳐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진보층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보수층은 부정적으로 평가함
- 진보층은 거의 모든 측면에서 '보통'(3점) 이상의 평점을 매겼으며, 특히 사회기여도(3.54점)와 유능함(3.61점)에 높은 점수를 매김
- 이에 비해 보수층은 '보통'(3점) 미만의 부정적 평가를 내렸고, 특히 호감도(1.84점)와 신뢰도(1.83점) 측면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함
- 중도층은 진보층과 보수층 중간에 위치해 있으면서 대체로 '보통'(3점) 미만의 부정적 평가를 내림
 - 다만, 예외적으로 유능함에 대해서는 '보통'을 소폭 상회하는 3.06점을 매김
- 한편, 대한민국 주도성에 대해 진보층은 '보통'에 근접한 평가를 내렸고(2.95점), 중도층과 보수층은 '소외되어 있는 편'에 해당하는 점수를 매김(각각 2.78점, 2.68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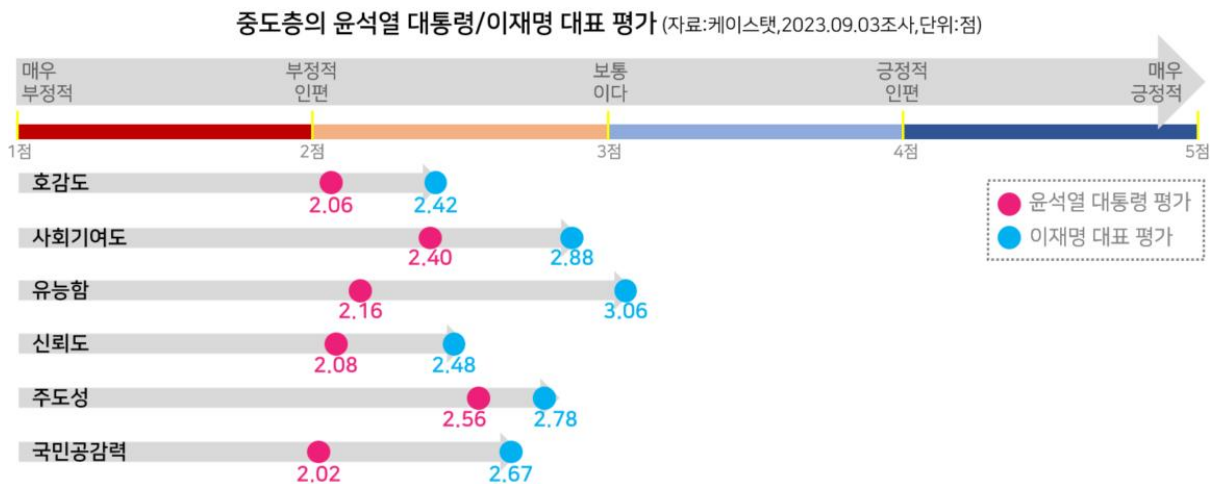


Kstat Point

- ☑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이념층별 평가는 전반적으로 진보층만 긍정적임
 - : 진보층 평점은 호감도 3.01점, 사회기여도 3.54점, 유능함 3.61점, 신뢰도 3.05점, 국민공감력 3.16점 등으로 긍정적임
- ☑ 보수층과 중도층은 전반적으로 '보통' 미만의 부정적 평가를 내렸고, 특히 보수층의 부정적 평가가 강함
 - : 다만, 중도층은 예외적으로 유능함에 대해서는 3.06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평가함
- ☑ 한편, 앞서 윤석열 대통령 평가에서 주목되었던 이재명 대표의 대한민국 주도성 평가는, 모든 이념층이 '소외되어 있는 편'으로 평가함
 - : 진보층도 2.95점으로 '보통'에 소폭 미치지 못하는 평가를 내림
 - : 이재명 대표의 위상인 야당 대표라는 측면에 주목할 때, 이러한 평가는 자연스러운 평가임
 - : 즉, 능력 등 다른 측면에서 아무리 긍정적 평가를 얻어도, 야당 대표라는 한계로 인해 대한민국 주도성에서는 '소외되어 있는 편'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음

□ 중도층의 윤 대통령/이 대표 평가, 이 대표에 우호적

- 중도층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만을 따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우호적임
- 먼저 호감도를 보면, 윤 대통령은 2.06점으로 매우 낮은 점수를 기록한 데 비해, 이 대표는 이보다 높은 2.42점을 기록함
 - 중도층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에 '호감이 안가는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우호적임
- 사회기여도를 비롯해 유능함, 신뢰도, 국민공감력 모두 윤석열 대통령보다 이재명 대표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림
 - 특히 이재명 대표의 유능함에 대해서는 '보통'(3점)을 상회하는 긍정적 평가를 함
- 한편, 대한민국 주도성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보다 이재명 대표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림 (각각 2.56점, 2.78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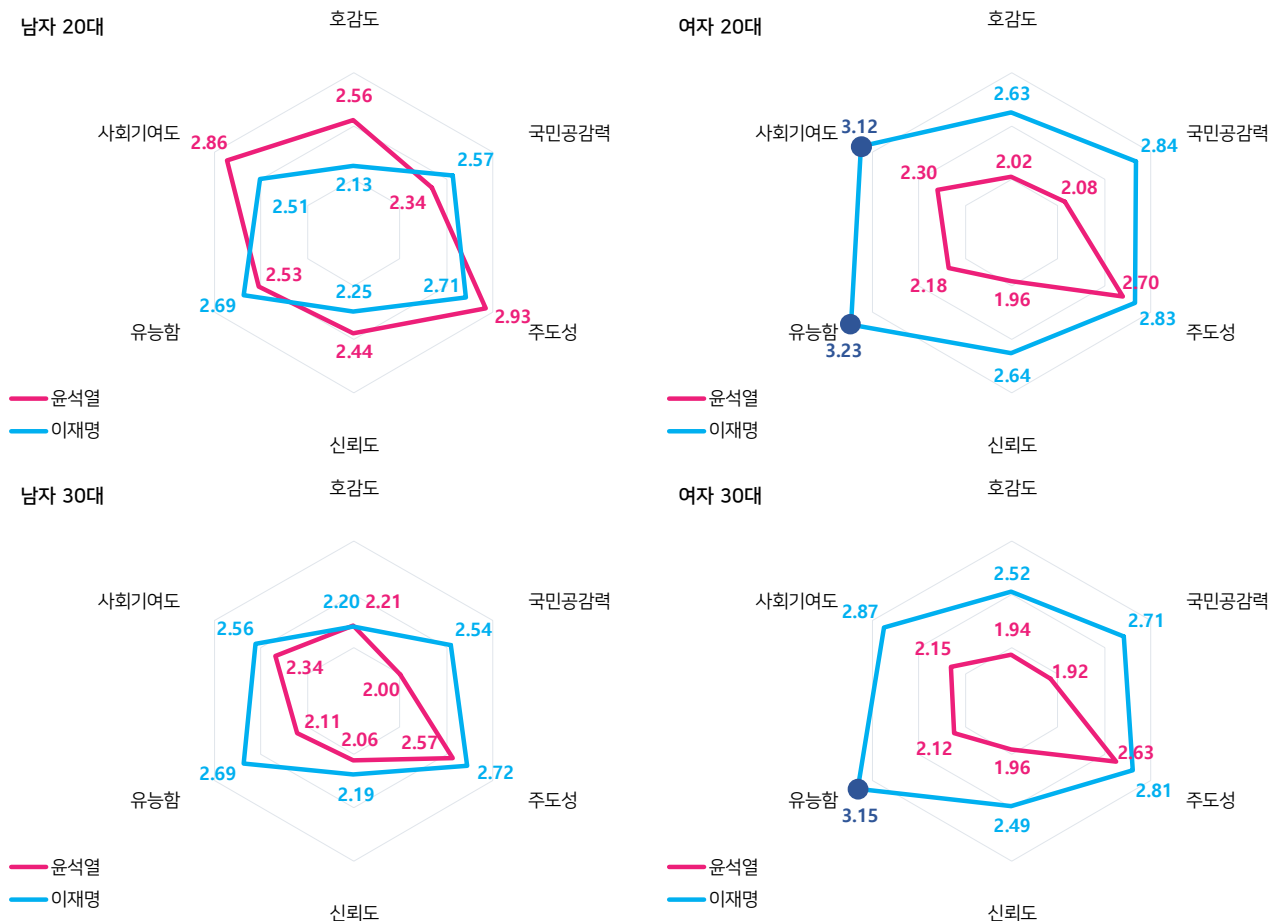


Kstat Point

- ☑ 중도층은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보다 이재명 대표에 우호적임
 - :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상당수 평점은 2점대 초반으로, '매우 부정적' 평가에 근접해 있음
 - : 윤석열 대통령 호감도 2.06점, 신뢰도 2.08점, 국민공감력 2.02점 등이 해당함
 - : 이에 비해 이재명 대표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매겼고, 유능함에 대해서는 '보통'을 넘은 3.06점의 긍정적 평가를 내림
- ☑ 역시 주목되는 점은 '대한민국 주도성'으로, 중도층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이재명 대표의 주도성을 긍정함(윤석열 대통령 주도성 2.56점, 이재명 대표 주도성 2.78점)
 - : 중도층이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 '소외되어 있는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덜 소외되어 있다(=더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함

□ 2030세대,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 부정 평가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를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먼저 2030세대의 경우 전반적으로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에 대해 부정적임
 - 거의 모든 측면에서 '보통'에 해당하는 3점에 미치지 못하는 부정적 평가를 내림
- 상대적으로 남자 20대는 윤석열 대통령에 우호적이고, 여자 2030세대는 이재명 대표에 우호적임
 - 남자 20대는 호감도, 사회기여도, 신뢰도, 주도성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평점이 높음
 - 여자 2030세대는 모든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평점이 더 높음
 - 특히 여자 20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사회기여도와 유능함에 대해 3점 이상의 평점을 매겼고, 여자 30대는 유능함이 3점 이상의 평점을 매김
- 남자 30대는 전반적으로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에 대해 매우 낮은 평가를 내리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에 소폭 긍정적인 점수를 매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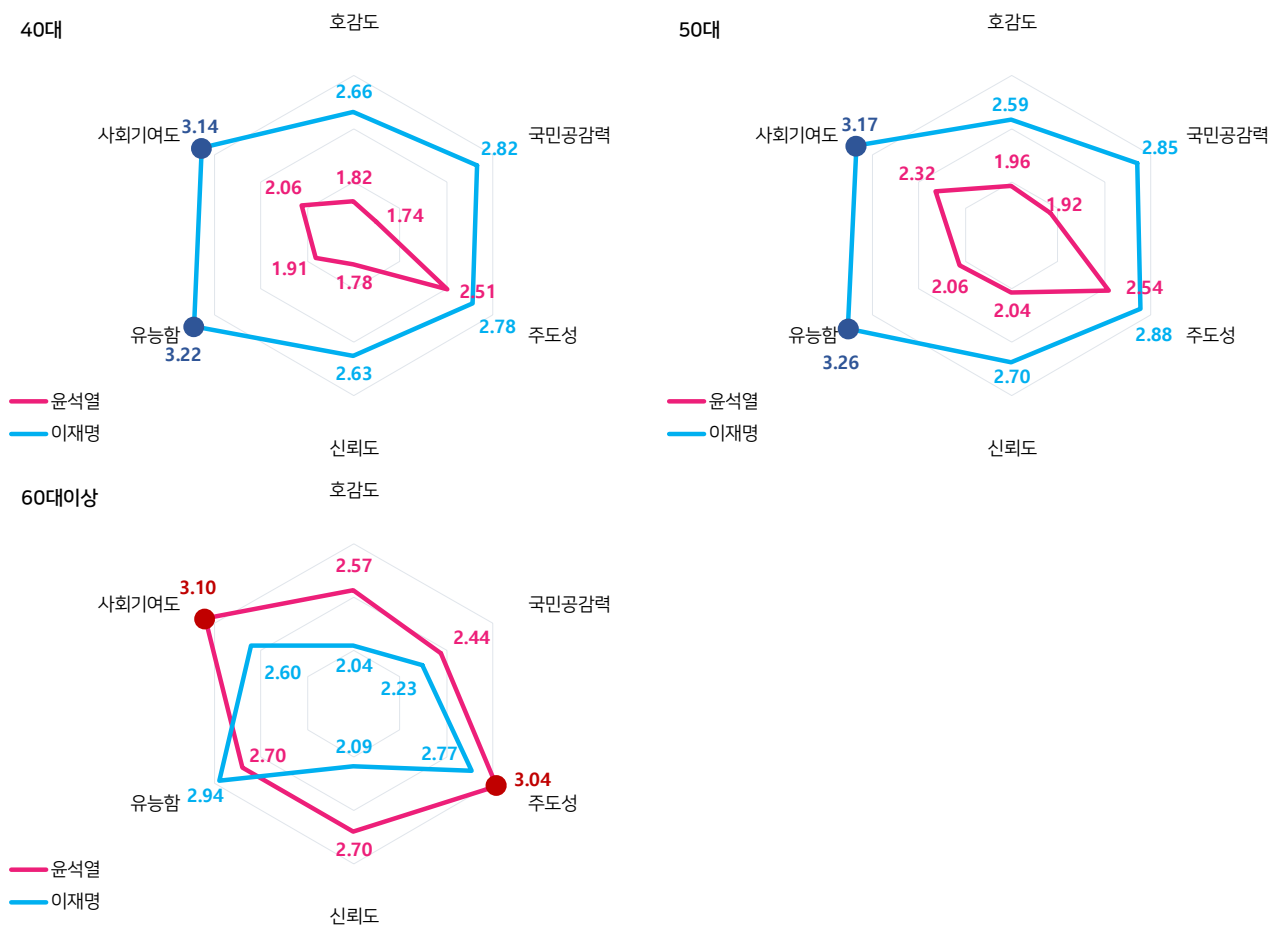


Kstat Point

- ☑ 전반적으로 2030세대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에 대해 부정적임
 - : 특히 남자 30대는 윤 대통령 및 이 대표 모두에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함
- ☑ 대한민국 주도성 평가를 보면, 2030세대는 두 사람 다 '소외되어 있는 편'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남자 20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도성을 소폭 더 긍정하고, 다른 2030세대는 이재명 대표의 주도성을 소폭 더 긍정함
 - : 2030세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함

□ 4060세대 역시 두 사람 모두에 대해 부정 평가

- 4060세대 역시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에 대해 부정적임
 - 거의 모든 측면에서 '보통'에 해당하는 3점에 미치지 못하는 부정적 평가를 내림
- 상대적으로 4050세대는 이재명 대표에 긍정적이고, 60대이상은 윤석열 대통령에 긍정적임
 - 4050세대는 모든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평점이 더 높고, 특히 이재명 대표의 사회기여도와 유능함에 대해 3점 이상의 평점을 매김
 - 60대이상은 거의 모든 측면에서 윤석열 대표의 평점이 높고, 사회기여도와 주도성은 3점 이상의 긍정적 평가를 함
 - 다만, 60대이상도 유능함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에 소폭 더 높은 점수를 매김



Kstat Point

- ☑ 전반적으로 2030세대는 물론 4060세대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에 대해 부정적임
 -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가장 부정적인 성/연령층은 40대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성/연령층은 60대이상임
 - : 상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남자 20대와 60대이상에서도 유능함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소폭 더 높은 평점을 받음
- ☑ 대한민국 주도성 평가는 60대이상을 제외하면 모든 성/연령층에서 두 사람 모두 '소외되어 있는 편'으로 생각함
 - : 60대이상만 윤석열 대통령의 주도성을 3.04점으로 평가, 유일하게 3점 이상의 점수를 매김
 - :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남자 20대의 윤 대통령 주도성 평점은 2.93점으로 3점 미만임
 - : 그외 모든 성/연령층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평점이 소폭 더 높음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사회지표는 매월 3주 목요일).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케이스탯 리포트 84호, 85호] 발간 안내

케이스탯 리포트 84호와 85호는
각각 10월 12일(목요일), 26일(목요일)에 발간되며,
케이스탯 2023년 10월 사회지표는 10월 19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